

바람의 빛깔

이 가을의 한복판에서 '바람의 빛깔'을 주제로 작가 이진영을 만납니다. 그동안 '흔적의 흔적(Trace of a Trace)', '운화몽(雲花夢)' 등을 통하여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이진영 작가가 또 다른 노래를 들려줍니다.

투명하나 선명하지는 않은, 평면적으로는 존재되어 있으나 입체적으로는 층층이 단절되어 있는 그의 작업은 인간의 다양한 모습과 그 모습들이 이루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하는 인간의 모습들은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의 개체로서의 인간은 몹시 다중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우리 인간은 생산자이기도 하고 소비자이기도 하며, 운전자가 되었다가 순식간에 보행자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아주 상반된 역할을 아주 자연스럽게 수행해나가는 인간은 얼핏 보아서는 모순인 듯이 보이는 요소들 사이에서 별다른 어색함을 느끼지 않는 듯합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고, 자연과 인공이 함께 하며, 음악과 미술이 서로를 담아내며 간섭하고 그러한 간섭은 다층적인 누적을 통하여 인간 자체를 형성하고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관계는 어쩔 수 없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작가 이진영의 작업에서 새삼 우리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작품을 위한 다양한 재료의 선택과 소재의 다층적인 제시를 통하여 사실을 찾기 위하여 애쓰는 인간의 부단한 땀을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작가 이진영의 작업이 가지고 있는, 얇고도 투명한 소재를 고르고 그에 어울리는 색깔을 올리고 한땀한땀 바느질로 마무리하는 과정 자체가 작품이라고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이진영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의도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습니다. 작품의 완성을 작가 자신의 영역 밖에 유보해 놓은 빛으로 미루어 놓고 있습니다. 이진영 작가의 작품은 시간과 계절에 따른 빛의 양과 질에 따라 그의 표정을 달리하여 때에 따라 각기 다른 작품으로 완성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람의 빛깔'은 작가 이진영의 작품을 모호하게 함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바람'이 이 가을의 바람[風]일 수도 있지만, 우리네 인간의 바람[望] 일 수도 있으며, 작품에 담기는 '빛깔'이 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바람 좋은 이 계절에 그의 빛깔을 흡씬 느껴 보셨으면 합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 시간에 각기 다른 이진영을, 얼굴이 달라진 또 다른 작품을 그리고 그를 통한 인간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한재영